

청소년이 읽을만한 책

출판협회 선정 '이 달의 청소년도서'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김낙준)가 선정하는 '이 달의 청소년 도서' 92년 4·5월분으로 12종의 도서가 뽑혔다. 이달의 청소년 도서는 재단법인 한국출판금고(이사장 정진숙)의 지원금으로 구입, 전국 각 지방의 공공도서관을 비롯해 청소년 선도기관·소년원·문화원 등에 골고루 배포된다. 다음은 이 달의 청소년 도서로 선정된 책들의 간략한 해제.

보석상자

크루이로프 지음 / 이향희 옮김



러시아 사회를 날카롭게 풍자한 우화집. 작가는 자연과 동물, 사람을 소재로 당시 러시아 사회의 수피·공금횡령·귀족계급의 위선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그 풍자의 대담성은 러시아 저널리즘에 있어서 일대 사건이기도 했다.

본문에 등장하는 황제·사자 등은 절대권력 가진 자, 농민·양 등은 압제에 시달리는 민중, 그리고 귀족은 절대권력자 곁에서 민중을 탄압하는 중간계층을 각각 대변하고 있다. 우화들은 모두 작가의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것들로 세상의 사물을 뒤집어 보는 시각을 독자들에게 던져 주고 있으며 단순한 재미뿐만 아니라 읽고 생각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고 있다. 청소년 이외 온 가족이 함께 읽을 수 있는 책.

서연 / A5신 / 218면 / 4000원

내 탓이오

박정훈 외 지음



1990년 후반기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오늘날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비도덕화와 비양심화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면서 전개한 신뢰회복과 참된 인간화의 운동 표어인 '내 탓이오'를 주제로 한 테마 에세이.

'내 탓이오'라는 말은 천주교의 영경기도문 중에서 자신의 죄에 대하여 참회하고 회개나 회심을 다짐하는 기도문으로 미사성제 때와 고해성시시에 외우는 일절이다. 즉 이 말 속에

는 참회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종교와 종교를 초월한 이들 작자들은 한결 같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사회가 어두워가는 이유는 바로 내게 있다고 하면서 다른 이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라는 '易地思之'의 정신을 갖고 작은 사랑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보성 / A5신 / 236면 / 3800원

사람이 산다는 것은

윤구병 외 지음



청소년이 건강한 자아를 확립하고, 우리 문화의 의의를 알아 자아 정체감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에세이.

이 책은 크게 4개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현재 충북대학교수이면서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 회장인 윤구병교수가 쓴 '철학이야기'는 어렵게만 생각되는 철학을 청소년들의 생활 속에서 그 예를 찾아가며 나열하고 있다. 여성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온 지은희씨가 쓴 '여성다움 남성다움 인간다움'은 통속적인 남녀 구분을 극복하고 인간으로서 타고난 재능과 자질을 키워야 한다는 관점에서 쓰여졌으며, 독일에서 법철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이화여대 박은정교수가 쓴 '인간과 법과 정의'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인간에게 법은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가를 조목조목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삶과 참문화'는 사회학을 전공하고 문화에 주의를 기울여온 김성기씨가 청소년 문화가 올바르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웅진 / A5 / 190면 / 3000원

浮生六記

심복 지음 / 지영재 옮김



작자가 자신의 아내와 함께 살아온 날들을 회상하며 지은 자서전. 일찍이 임어당은 작자의 아내 운(云)이를 '중국 문학에 있어서 가장 사랑스러운 여인'으로 칭송할 정도로 운이는 재녀였다.

이 책은 작자와 아내의 즐거운 에피소드, 취미, 현실적인 금전·대가족 문제 등의 비극, 중국 명산 순례기, 유구나라의 풍정, 건강 문제 등

여섯가지 이야기로 이뤄져 있는데 작자의 솔직한 기록은 인생을 사는 방법을 관찰하고 논평한 새로운 고전이 되고 있다. 또한 이들 부부의 사랑을 통해 우리들의 사랑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자서전은 단순히 연대기적 서술이 아니라 각 주제별로 서술이 되어 있어 흥미도 더해지고 있다.

을유문화사 / A5 / 262면 / 4,000원

書經新譯

김희영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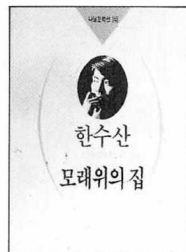
유교 경전 중의 하나인 「서경」을 쉽게 풀어 쓴 책. 「서경」을 다른 이름으로 「상서(尚書)」라고 부르는데 '오래된 책' 또는 '옛날의 책'이라는 뜻이다. '상서'라는 말도 '높은 책'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고대 중국 임금들의 정치사상이 담겨져 있는 이 책을 송나라의 채침은 "요임금·순임금·하나라 우임금·은나라 탕왕·주나라 문왕과 무왕의 커다란 경륜과 커다란 법이 모두 「서경」 속에 다 실려 있다."고 말했다. 「서경」에서는 일관되게 천명사상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하늘의 명을 받은 사람이 임금 자리에 올라 하늘의 뜻에 따라 백성을 다스린다'는 뜻으로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다. 즉 민심이 떠나간 임금은 이미 천명을 잃은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 「서경」의 사상적 토대이다.

청아 / A5신 / 326면 / 4200원

모래위의 집

한수산 지음



「부초」의 작가 한수산씨의 문학선이 출판됐다. 흔히 '감성적'인 작가라고 불리는 그의 문장은 언어가 만들어내는 심상의 유희성, 속도감 그리고 그 유

동성에서 생겨나는 신선함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번 문학선에 수록된 소설들을 보면, 신춘문에 데뷔작 「四月의 끝」을 비롯해 「날개와 사슬」 「타인의 얼굴」 「선사의 꿈」 「모래위의 집」 「回航」 「안개시정거리」 「겨울 숲」 「빛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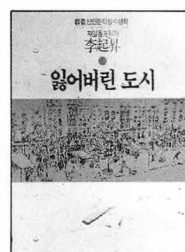
감옥」. 작가는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 20년간 죽음의 문재와 함께 산업화 과정에서 애기되는 사회적 풍경을 순수한 목소리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

작가의 이번 작품선을 통해서 독자는 20년 가까이 일관되게 이어온 작가의 정신세계를 대할 수 있을 것이며 장차 작가의 변화까지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나남 / A5신 / 354면 / 5500원

잃어버린 도시

이기승 지음 / 김유동 옮김



재일동포 작가가 지은 소설집. 일본에서 회계사시험에 합격한 작가가 쓴 이 소설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일본사회의 부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동시에 재일동포의 눈으로 본 한국사회를 그리고 있다.

"제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한몫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역사라는 불가항력 때문에 좋은 싫든 일본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작가의 이러한 말처럼 그의 소설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대개 탈출을 꿈꾸며 이 꿈에서 좌절하는 군상들이다. 우리의 모습이 타인에게 어떻게 비추지는 지를 알 수 있는 소설집.

일본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재일동포'라는 작가와 소설 속의 주인공들이 겪는 아픔을 느낄 수 있다.

삼신각 / A5신 / 390면 / 5000원

학교극·청소년극

하유상 외 지음



학교극·청소년극에 대한 이론과 실재를 제시한 지침서. 학교극이나 청소년극을 하고 싶어도 지도하는 사람이나 지도를 받을 사람을 위한 이렇다할

만한 지침서가 별로 없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이 상영하기에 알맞은 극본이 매우 드물었다는 사실을 감안해 펴낸 이 책은 학교극·청소년극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해서 실제 연기를 지도하거나 배우는 방

법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무대장치, 조명, 분장, 효과와 음악 등이 어떻게 연극에 이용되는지에 대한 설명과 「나비의 꿈」 「흑 뱀 이야기」 「개구장이 스머프」 등의 학교극극본과 「자비의 눈물」 「기적소리에 익는 고구마」 「나의 라임오렌지나무」 등 다수의 청소년극대본이 있어 실제 연극 상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성문사 / A5신 / 780면 / 3500원

수학은 아름다워 2

육인선 지음



수학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청소년들을 위해 수학을 일상생활에서 배울 수 있도록 유도한 현직교사(언남고교 수학교사)의 저서.

1편에 연이어 기술한 이번 2편은, 1부는 현대수학의 기초가 되는 집합론을 일상생활과 연관해서 기술했다. 2부에서는 실수, 복소수, 함수, 행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수학의 구조에 대해서 정리했고, 3부에서는 변환에 대해서 단계별로 서술했다. 마지막으로 4부는 확률과 통계를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말하고 있는데 막연히 수학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내용.

동녘 / A5 / 256면 / 3500원

사랑해요 지구아저씨

장원 · 전기윤 지음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어른들도 함께 볼 수 있는 환경도서. '하나뿐인 지구를 위한 그림 메시지'라는 부제가 말해주듯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의 환경 문제를 재미있는 그림과 함께 설명해주고 있다.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환경 문제는 일상의 장소-부엌, 교실, 직장 사무실, 동네, 백화점, 산이나 바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그 해결점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다. 공해 방지의 최우선 실천사항으로 작가는 물자 절약, 꼭고 있는데 수도 꼭지하나에서 똑똑 떨어지는 물이 한달에 1.2톤 일년이면 14톤에 이른다는 작은 예들을 나

열하고 있다. 리우에서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 환경문제를 심각히 고민하고 있는 이때 일독을 권한다.

김영사 / A5 / 64면 / 1000원

시간은 항상 미래로 흐르는가

스티븐 호킹 지음 / 과학세대 옮김



블랙홀의 특이점 정리와 블랙홀 증발이론으로 일찍이 이론 물리학의 선도자로 칭송받는 저자가 일반상대성이론에 관한 강연 내용을 채록한 이론서.

‘시간순서보호가설’은 전문가들을 상대로 발표된 내용으로서 약간 난해하지만 나머지 세편은 유머가 풍부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친절한 설명까지 들어있다. 모든 내용은 권말에 영어 원문이 붙어 있어서 영어에 관심있는 이는 원문을 읽는 것이 더 좋을 듯. 3장은 제목에서 잘 나타나듯이 현대 물리학을 떠받치는 양대 기둥인 상대론과 양자론 그리고 그 둘을 통일시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근육무력증이라는 증병을 앓고 있는 저자 호킹 박사는 이제 자신의 입으로 말도 할 수 없는 처지.

우리시대 / A5 / 204면 / 3800원

땅에서 하늘로

김정환 · 이원규 지음



나비의 일생을 글과 사진으로 엮은 서적. 나비가 알에서 깨어나 애벌레로, 번데기로 완전한 몸체의 나비로 변화하는 모습을 사진과 시가 잘 설명해주고 있다. 나비에 대해서 집요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두 저자는 나비를 통해 좌절과 고통을 감내하고 끝내는 하나의 생명체로 굳건히 일어서는 과정을 형상화하면서 독자의 생도 반추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한마리 못생긴 애벌레가 아름다운 긴꼬리제비나비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담은 생태사진 이외에도 노랑나비, 모시나비, 청미선나비, 빨나비, 흰뱀나비 등 희귀한 나비 사진이 시선을 끌고 있다. 글은 시적인 형식을 빌렸으면서도 나비들의 생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꾸민다는 것이 이 책의 특징.

현암사 / A5 / 142면 / 6000원

BOOK
TOTAL SERVICE
마루별
최고만을 고집하는 전문출판 두뇌집단

· 많은만 관심사!
생각하고 계산 것을 완벽한 해답은 책으로 푸어드라겠습니다.
· 기획에서 인쇄 제본까지 통합 출판서비스 시스템이 한 곳에 있습니다.

혼이 있는 책! 생명력 있는 책을 만듭니다.

“세련되기는 했는데 무언가 빠진 것 같다.”
“편집이 엉성하군!”
“이거 교열을 맡겼더니 엉뚱한 내용으로 바뀌 버렸구만... 허허...”
“웬 오자가 이렇게 많아!”
“식자가 왜 이래? 떡을 찼군!”
“언제 끝납니까? 원고가 넘어간지가 벌써 언젠니까? 이래서 일할 수 있겠어요!”
“인쇄가 왜 이래... 화장 잘못된 여자 같군!”

책 만드는 현장에서 흔히 듣게 되는 창피하고 답답한 이야기들입니다.

- 저희 기획 · 편집 · 식자 · 인쇄 · 제작 전문집단 마루별은 최소한 이러한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다만 '뭔가 달라'라는 말을 듣고 있을 뿐입니다. '뭔가 다르다'는 것! 저희는 그것을 전문성과 오랜 경험, 그리고 정성의 결합에서 나온 '혼'이라고 생각합니다.
-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바로 저희 마루별에 있습니다. 그것은 출판 · 홍보 · 광고 기획, 편집, 운문, 교열 · 교정, 디자인, 식자, 출판, 제판, 인쇄, 코팅, 제본에 이르기까지 저희 마루별은 전문성과 감각, 정확성과 함께 혼을 불어 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러한 정신으로 단행본, 사보, 잡지, 광고 등 인쇄매체에 관련한 장르에 관계없이 완벽한 최첨단 시설과 전문인력으로 생명력 있는 제3의 창조물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혼이 있는 프로의 세계와 만나 보십시오!

전문 두뇌 집단 '마루별'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 일관 출판 시스템! 신속하고 확실한 만족을 드립니다.
☎ 문의하시는 분께는 저희가 제작한 서체견본집을 드립니다.

- 디자인 / 표지 · 본문 · 광고 · 카타로그 등 마케팅전략에 의한 감각적 · 차별적 디자인!
- 편집 / 단행본 · 사보 · 잡지의 세밀한 편집!
- 운문 · 교열 · 교정 / 완벽한 문장구성 · 충실한 내용 재현을 위한 제 3의 창조!
- 식자 · 출력 /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 · 매킨토시 완벽 출력서비스
- 제판 / 최신 설비에 의한 단색 · 원색 제판!
- 인쇄 / 예술성 있는 완벽한 색의 재현 · 고품질 인쇄!
- 제작 / 완벽한 마무리를 위한 세심한 코팅 · 제본!
- 기획 / 원고 기획 · 마케팅 · 편집계획 · 광고 등 종합 컨설팅!

종합출판서비스 **마루별** 매킨토시 전문 업체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가 40-6 TEL: 701-2391(대표) FAX: 701-2395